

사회주의체제 형성기 북한 교원의 충원과 관리

교원양성기관 교원을 중심으로

박혜숙(서울용동초등학교)

이 논문은 사회주의체제 형성기인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북한의 교원 양성기관의 교원들을 연구하였다.

해방 이후 극심한 교원 부족 현상을 겪었던 북한 당국은 교원의 양성 및 충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교원 양성에 주력하였다. 당시 교원양성기관으로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과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전문학교, 그리고 임시양성기관인 양성소등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교원양성기관의 교원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는지, 북한 당국은 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해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였다. 이들 교원들을 연구하기 위해 북한노획문서인 RG-242자료인 교원 이력서를 분석하였는데 교원대학 교수, 사범전문학교 교원, 양성소 교원의 이력서를 연구하였다. 교원대학 교수에는 청진·평양교원대학 교수를, 사범전문학교 교원으로 평양 여자·함흥·북청 여자·철원 사범전문학교 교원을, 양성소 교원으로는 교육간부양성소 교원을 분석하였다. 이들 교원들의 당소소속, 교원 경력, 일제교원 경력, 학력, 출신 성분, 나이 등 사회적 속성들을 분석하여 양성기관별로 비교하였다.

북한 당국의 임용 특징을 살펴보면 조사서 작성 및 평가를 통해 인사 조치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교원의 분류 및 재배치의 효과를 가져왔다. 교원을 평가하는 항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이론 수준과 사업 능력이었으며 교원양성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를 두면서 다른 평가항목들을 적용

하였다. 또한 견책, 경고, 철직, 출당 등의 징계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합당하지 않은 교원들을 배제함으로써 교원 집단의 사회주의화를 공고히 하였다

북한 당국은 임용에서부터 관리, 징계 등 일일이 각 교원집단별로 개입하면서 교원 양성 교원을 사회주의화해나갔다.

주제어: 북한 교원, 북한 교원의 충원, 교원양성기관, 교원양성기관의 교원, 사회주의체제 형성기

1. 들어가는 글

최근 들어 북한의 교육 연구가 개론서 형식의 부문별 연구에서 벗어나 정치사상교육 관련, 교육체제와 교육행정, 사회교육과 성인교육, 유치원교육 등 주제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점차 세분화된 연구 경향을 띠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연구 주제를 필요로 하며 심화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양적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정책 연구에 대한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며 기초 연구에 대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¹⁾

또한 연구 방법 면에서도 기존의 연구가 주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춰 국가의 계획과 의도, 정책의 집행, 교육집행 세력의 특징,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면이 강한 반면, 미시적

1) 신효숙, “북한 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5권 제1호(2006), 135, 155 ~ 157쪽.

측면에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수혜자인 교육 담당자, 피교육자 등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나²⁾ 교육의 실천자이며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담당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교원 연구에서도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등 국가행위자 중심의 교원연구물들이 대부분이며 수혜자로서의, 교원 중심의 연구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형성되는 시기의 북한 교육을 교원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해방 직후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형성기³⁾의 교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사회주의화되어갔는지를 교원 중심의 미시적 연구를 시도하여 교원의 특징과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교원의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영향력을 살펴본 뒤 교원집단 내에 적용되고 실현된 국가 개입 양상을 교원평가 및 인사조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교원을 ‘혁명가’로 규정한다.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 혁명가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직접적인 담당자⁴⁾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교원은

2) 위의 글, 141, 155~157쪽.

3) 학자마다 이 시기를 달리 표현하는데 김동규는 ‘평화적 건설 시기’라 하고 김형찬은 ‘민주개혁 및 사회주의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라 하며 북한연구소는 ‘6·25 이전 시기’라 한다.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서울: 문맥사, 1990); 김형찬, 『북한의 교육』(서울: 을유문화사, 1990);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45~1982년』(서울: 북한연구소, 1983).

4)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3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412쪽,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직접적 담당자. 우리나라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끝없는 충직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주체형의 인간으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다음 세대를 교육·교양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끊임없는 충직한 주체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주체형의 인간으로 키우는 재생산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교원은 다음 세대들을 재생산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해방 직후를 북한 교육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보고 오늘날 북한의 교원이 ‘직업적 혁명가’로서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 재생산의 임무를 충실히 담당하는 사회주의 교원이 되기까지 그 첫 시작점인 해방 직후의 교원들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들 교원의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RG242자료를 발굴 활용하고자 하며, 특히 북한 교원들 가운데 북한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RG242자료는 1950년에 북한 지역에서 미군이 노획한 문서들인데 매우 방대한 양으로 ‘북한 연구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연구가 북한자료의 부족으로 진전되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와서 북한자료들이 공개되고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해외에 보관되었던 북한 교육 관련 문서들이 소개되는 등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의 정리와 충분한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필자는 RG242자료의 일부인 교원 이력서를 발굴해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표 1>은 이 논문에 사용한 교원 이력서 목록으로 총 192명의 이력서를 분석하였다. 특히 교원들을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원들을 교원대학 교수, 사범전문학교 교원, 간부양성소 교원으로 나누어

제1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430쪽.

<표 1> 이 논문에 사용된 교원 이력서 목록

분류	세부 집단	학교명	분석대상(명)
교원 양성 기관 교원	교원대학	평양 교원대학 교원 이력서	36
		청진 교원대학 교원 이력서	27
	사범 전문학교	평양 여자사범전문학교 교원 이력서	35
		함흥 사범전문학교 교원 이력서	29
		북청 여자사범전문학교 교원 이력서	8
		철원 사범전문학교 교원 이력서	22
	양성소	교육간부양성소 교원 이력서 (중앙, 황해도, 함북, 강원, 평남)	35
분석대상 교원 이력서의 합계			192

서 이력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 교원들의 특징 및 이들을 임용하고 관리하는 북한 당국의 개입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교원의 사회주의화의 시작점을 밝히고 초기 북한 교육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려고 한다.

2. 북한의 교원양성기관

1) 교원대학

북한지도부는 1946년 3월 6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교원양성사업을 교육 부문의 첫째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7월 7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제21호)으로 교원대학과 사범전문학교를 창설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해방 당시 남한에는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하여 약 20여 개에 달하는 전문학교가 집중되어 있었으나 북한에는 모두 3개의 기술전문학교와 6개의 사범전문학교만이 있었고)

단 하나의 고등교육기관도 없었다. 이 조치에 의하여 1946년에 9개의 사범전문학교와 고등사범교육기관인 교원대학이 창립되었다. 사범전문학교는 초급중학교 졸업생이 진학하는 후기 중등교육기관으로 인민학교와 보육원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이며 교육기간이 3년이다. 고등교육기관인 교원대학은 중등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2년제 대학이다.

또한 1948년 2월 6일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는 1948년 교육문화발전계획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사범교육기관의 최고학부인 평양사범대학을 설립할 것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1948년까지 13개의 사범전문학교(3년제)와 4개의 교원대학(2년제), 1개의 사범대학(3년제)이 설립 운영되었다. 이로써 교원의 체계적인 교원양성교육이 수립되었으며 교원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교육간부의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1946년 7월 7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서 33호 『교원대학설립(사범전문)에 관한 건』⁶⁾에 따라 1946년 10월 1일 평양과 청진에 교원대학을 창설하였다. 이 결정서에는 교원대학의 설립 목적과 수업 연한, 입학생의 수, 교육부와 교원대학 소속 해당 임시인민위원회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청진·평양 교원대학의 설립은 교육부와 인민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위에 설립되었으며 다른 교원대학들도 뒤이어 설립되었다. 정주 교원대⁷⁾는 1947년 10월 10일에, 해주 교원대학은 1948년 10월

5)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 127쪽.

6)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V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662~663쪽.

7) 신의주교원대학으로 개칭됨.

<표 2> 교원대학 설립일 및 학과

대학명	설립일	학과
평양 교원대학	1946.10.1	교육학과, 역사지리과, 어문과, 수물과, 생물화학과, 체육과
청진 교원대학	1946.10.1	력사과, 조선어문과, 지리과, 화학과, 박물과, 로어과
신의주 교원대학	1947.10.10	역사과, 조선어문과, 수물과, 화학과, 박물과, 로문과, 체육과
해주 교원대학	1948.10.5	력사과, 조선어문과, 지리과, 수물과, 화학과, 박물과, 로어과, 체육과
원산 교원대학	1949.10.15	력사과, 조선어문과, 지리과, 수물과, 화학과, 박물과, 로어과

자료: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346쪽.

5일에, 원산 교원대학은 1949년 10월 15일에 창립되었으며⁸⁾ 각 교원대학은 신의주, 해주, 원산 등 각 도의 중심지에 설립되어 지역의 교원들을 양성하였다.

2) 사범전문학교

사범전문학교는 인민학교교원을 양성하는 후기 중등교육기관으로 초급중학교 졸업생이 진학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3년이다. 해방 당시 북한에서는 6개의 사범전문학교가 있었는데 『전문대학(사범전문)설립에 관한 건』 조치에 의하여 1946년에 9개의 사범전문학교로 증가했으며 1948년까지 13개의 사범전문학교가 설립 운영되었다. 사범전문학교 학생 수를 보면 해방 후 1946년에서 1947년에 4,845명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3년 만에 1만 1,700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1949년 7월에는 1,455명의 학생이 졸업하였다.⁹⁾ 사범전문학교 학교 수 및 학생

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 129쪽.

9)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245쪽.

<표 3> 사범전문학교 학교 수 및 학생 수(1946~1949)

년도	학교 수	학생 수	졸업생 수
1946~1947	9	4,845	
1947~1948	13	7,182	
1948~1949	14	11,700	1,455
1949~1950	17		

자료: 교육과학사, 『해방 후 10년간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평양: 교육과학사, 1955), 3~94쪽;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345쪽 (1948~1949년 통계).

수는 <표 3>과 같다.

사범학교학생의 증가는 북한 당국의 각별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47년 6월 13일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45호인 <전문학교·대학 학생 장학금 수여에 관한 결정서>를 보면 “학생들의 수학 조건을 국가적으로 보장하여 광범한 근로인민의 자제에게 취학의 길을 열어주어 민주교육의 성과를 더욱 제고시키기 위해 장학금을 수여”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장학금 수여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김일성대학 예비과 전원
2. 김일성대학 본과 전원의 50%
3. 단과대학 전원의 50%
4. 교원대학 전원의 50%
5. 사범전문 전원
6. 전문학교 전원의 50%
7. 초등교원양성소 및 중등교원양성소 전원

사범전문의 경우는 전원이 학비 전액을 면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학용품 우선 배급을 받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 이는 국가가 인민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되도록 많은 학생들을 사범전문학교로 유인함으로써 교원 양성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사범전문학교 학생들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졸업시험은 구답과 필답으로 나누어서 치러지며 수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졸업시험은 아래와 같은 과목 및 종류로 시행한다.

- (1) 문학(작문, 국어) 수학(산수, 대수, 기하, 삼각), 세계사(근세사) 교육학 및 교수법(사범과에 한함) 교육학 및 학령전 아동교육학(보육과에 한함) 및 외국어의 5과목.
- (2) 문학, 수학은 필답 및 구답, 기타 과목은 구답시험을 실시한다.
- (3) 문학은 구답시험(문학과 문법) 1회, 필답시험(작문) 1회.
- (4) 수학은 필답시험 2회(1회는 산수, 대수, 1회는 기하, 삼각) 구답시험 3회(산수, 대수, 기하와 삼각 각 1회) 이상 10회의 시험을 실시한다.¹⁰⁾

국어와 수학은 구답시험과 필기시험으로 치렀으며 세계사, 교육학, 외국어는 구답시험만 치렀다. 국어시험의 경우는 작문은 필답시험으로 1회, 문학과 문법은 구답시험으로 1회를 치러 총 2회에 끝나는 반

10) 교육성령 제7호, “사범전문학교 국가졸업 및 진급시험에 관한 규정”(1949.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고보』, 제5호(1950); 이향규,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1945~1950”(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220쪽에서 재인용.

면 수학은 5번을 평가하였다. 이것은 총 10회의 시험 중 절반에 해당 하는 것으로 수학이 상당히 비중 있는 과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험 과목에서 수학 등 일반 기초 과목이 강화된 이유에는 인민학교 교육 과정상 국어와 산수가 가장 많은 시간 수를 차지하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치이자 선진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여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북한지도부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¹¹⁾

3) 교육간부양성소

1946년도에 설립된 교원대학교와 사범전문학교의 졸업생이 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으므로 그 시기에 필요한 교원을 충원하는 데 단기간 교원을 양성하는 양성기관이 필요했다. 따라서 1946년 3월 이래 중앙과 도마다 단기교원양성소들이 설치되었다. 단기 양성소는 인민학교 교원의 양성을 위한 인민교원양성소와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중등교원양성소가 만들어졌다. 인민교원양성소에서는 당과 정권기관, 공장, 기업소에서 일하는 일꾼들 중 일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여 국가 부담으로 인민학교 교원들을 양성하였다. 이 단기교원양성소를 통하여 1946년 7월에는 2,000여 명의 인민학교 교원들이 양성되었으며 1947년 2월에는 약 2,000명을 양성했다.¹²⁾ 1948년에는 44개의 인민교원양성소에서 3,180명이 배출되었다.¹³⁾ 1949년에는 2월 1일부터 개교한 인민교원양성소에서 단기강습

11) 김일성, “교원 대학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전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90쪽.

12) 김창호, 『조선교육사』, 제3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136쪽.

13) 남일, “1948년 인민경제 부흥발전 실행에 있어서의 새경험과 새과업.” 『인민』, 9월호(1948).

등을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5,172명의 인민교원들이 새로 양성 배치되었으며 1949년에 북한 인민학교 교원 수는 2만 7,380명에 이르렀다¹⁴⁾

중등교원양성소는 평양, 신의주, 함흥, 청진, 원산, 해주 등 도 소재지에 설치되었다. 주로 교원대학이나 중등학교에 부설되었다. 교육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이었으며 국문과 교원, 수물과 교원, 역사과 교원, 지리과 교원, 로어과 교원 등 중등학교 과목 교원을 양성하였다. 중등교원양성소에서는 초등학교 교원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수료 후 중학교 교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중등교원양성소에서는 1947년에 1,292명의 교원을 배출하였다.¹⁵⁾ 1947년에 고급중학교가 생기자, 고급중학교 교원을 기르는 고급교원양성소가 만들어졌다. 1948년 현재, 7개의 중등교원양성소에서 2,400명이, 3개의 고급교원양성소에서 700명이 각각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및 전문학교로 배치되었다.¹⁶⁾

1945년 해방 이후 교원의 증가 수를 보면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북5도 각급학교 교원 현황(1945년 8월)¹⁷⁾을 보면 해방 직후 조선인 초등교사는 8,596명이었으며 조선인 중등교원은 669명, 조선인 대학교원은 7명에 불과했다. 이러던 것이 소련군정이 조사한 1948년 6월 북한의 교원 분석표¹⁸⁾를 보면 초등교원이 2만 5,307명, 중등교원이 1만 1,958명, 고등교육기관교원은 463명으로 늘었다. 3년 사이

14) 김창호, 『조선교육사』, 제3권, 170쪽.

15) 교육도서출판사, 『해방 후 10년간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95쪽.

16) 남일, “1948년 인민경제 부흥발전 실행에 있어서의 새경험과 새과업.”

17) 이향규,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1945~1950,” 214쪽 재인용.

18) АВІРРФ, Ф.0480, оп.4, п.14, д.46, лл.318~321;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2003), 215쪽 재인용.

에 초등교원은 약 3배가 늘었으며 중등교원은 18배, 고등교육기관교원은 66배가 늘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로 엄청난 수의 교원들이 충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기교원양성소에서 얼마나 많은 교원들을 공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통계이다.

북한 당국은 부족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양성소를 설립 운영했뿐만 아니라 교육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양성소를 설립 운영하였다. 1947년에 각 도 소재지에 교육간부양성소가 전반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해 11월 25일에는 평양에 중앙교육간부양성소가 개교했다. 중앙교육간부학교 제1기는 각 도 고급중학교, 전문학교 교장 66명이 망라되었으며 2개월간 재교육을 받게 되었다.¹⁹⁾ 대상을 보면 인민학교 교장, 중학교 교원, 교무주임, 교양주임, 교장, 고급중학교 교원, 전문학교 교원 등 다양했으며 이들은 6개월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을 끝낸 후 졸업증서를 받았는데 졸업증서에는 수료기간과 기수, 전공과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성’ 소속 ‘평안북도 교육간부양성소 소장’이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양성소에서 정치사상학습과 전공과목, 일반교육을 학습하였다. 정치사상학습 관련 교과목은 5개 정도의 과목으로 필수공통이었다. 정치 관련 과목으로 해방투쟁사, 해방 후 조선, 쏘련, 대중정치지도경험, 제2차 세계대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학, 국어문법, 교육실습, 교재 연구가 있었으며 나머지 교과목은 전공과목이었는데 교과목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물리학 전공인 함경남도 교원의 교육간부양성소 성적표를 보면 정치사상학습 관련 교과목, 일반교육 관련 과목, 전공과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반교

19) 김창호, 『조선교육사』, 제3권, 137쪽.

육 관련 과목인 ‘국어문법과 교재 연구’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청강 과목임을 알 수 있다. 성적은 5점 만점으로 5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청강과목은 점수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공과목으로 ‘력학, 열 및 분자물리, 전자기학, 광학, 원자물리기초, 미적분학, 해석기하’ 등으로 세분화하여 성적이 모두 기입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간부양성소에서는 교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습득과 정치교양학습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교원양성기관 교원의 임용과 충원

1) 사회적 속성별 특징

(1) 당 소속률

당성은 로동당 소속뿐만 아니라 민청이나 교직동맹 등에 소속되어 있어도 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사회단체에 대한 기록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로동당 소속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소군정 교육 담당자에 의해 작성된 교원 분석표에 나와 있는 자료들과 비교하여 북한 전체 교원집단과 연구에 사용된 표집교원집단 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교원대 교수의 경우 로동당 입당자는 72%에 해당되며 나머지 28%는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비록 당 소속률은 72%이지만 직업동맹 등의 사회단체소속률 28%를 합하면 100%로 당성은 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에서와 같이 1948년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교수들의 경우 62%에 해당하는 교수들이 로동

<표 4> 교원들의 로동당 소속률

집단	세부 집단	인원	로동당	당 소속률 (%)	사회 단체	다른 당	무소속	과외 불응	북한전체 교원집단	
									교원	당 소속률(%)
교원 양성 집단	청진 교원대학	27	18	72%	7			2	대학	62%
	사범전문 (4학교)	94	48	51%		3(민2, 청우당1)	43		고중 및 전문학교	67%
	양성소 (교육간부 양성소)	36	33	91%			3			

자료: 필자가 이력서를 분석하여 정리함. 북한 전체 교원집단의 당 소속률은 ABTPΦ, Φ.0480, OII.4, II.14, II.46, III.318~321,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215쪽.

당 소속이라는 점을 비교해볼 때 청진 교원대학 교수들의 로동당 소속률은 당시 교수들보다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원을 양성하는 교수들의 당성을 일반교수들보다 더 중요시한 북한 당국의 의도를 볼 수 있다.

사범전문학교의 경우는 당성이 표본집단 사이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로동당 소속 비율을 보면 94명 가운데 48명이 로동당 소속으로 50%를 간신히 넘는다. 이들 사범전문학교 교원의 인원수는 평양 여자사범전문학교와 함흥 사범전문학교, 철원 여자사범전문학교, 북청 여자사범전문학교 네 학교의 교원 수를 합한 것이다. 북청 여자사범학교의 경우는 당 소속이 100%이고, 철원 사범은 77%, 함흥 사범은 65%인 데 비해 평양 여자사범은 37%에 해당한다. 북한의 교원 분석표 <표 5>에 의하면 전문학교 교원의 당 소속률은 67%로서 사범학교마다 이 기준을 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범학교 교원들은 당성이 다른 교원양성집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비록 당소속률은 떨어지지만 당성이 부

<표 5> 북한의 교원 분석표(1948년 말경)

	인민학교	초급중학교 및 초급기술학교	고급중학교 및 전문학교	고등교육 기관	총계	
	교원 수	교원 수	교원 수	교원 수	총교원 수	비율 (%)
	25,307명	9,002명	2,956명	463명	37,728명	
성별에 따라						
남자	19,401	8,209	2,693	415	30,718	81.4
여자	5,906	793	263	48	7,010	18.6
교육 수준에 따라						
인민학교	7,720	89	1	1	7,811	20.7
중등학교	10,448	6,202	629	-	17,274	45.8
중등사범	7,048	2,213	1,086	47	10,430	27.6
대학중퇴	55	252	261	190	758	2.0
대졸	5	246	979	225	1,455	3.9
근무 연한에 따라						
1년 미만	8,036	1,890	585	30	10,941	29.0
1~5년	12,326	5,253	1,320	179	19,078	50.6
6~10년	3,693	1,127	401	125	5,346	14.1
11~20년	1,072	623	225	107	2,027	5.4
20년 이상	180	109	25	22	336	0.9
소속 당에 따라						
노동당	11,948	5,400	1966	289	19,603	51.9
민주당	750	471	118	4	1,343	3.6
천도교	476	147	30	-	653	1.7
기타	12,133	2984	842	170	16,129	42.8
사회 계층에 따라						
노동자	1,124	428	118	8	1,678	4.4
소농	14,176	4,278	986	149	19,589	51.7
중농	5,056	1,873	798	96	7,823	20.8
사무원	2,214	1,020	409	52	3,695	9.8
부농	402	164	113	61	740	2.0
상인	792	572	156	42	1,562	4.2
자본가	61	49	38	2	150	0.2
지주	725	341	217	13	1,296	3.5
기타	755	322	126	40	1,243	3.4

자료: ВПРФ, Ф.0480, оп.4, п.14, д.46, лл.318~321.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215쪽에서 재인용.

족하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청 소속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당소속률을 보인 평양 여자사범대학의 경우 이력서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평양 교원대학 출신의 여교원들이 많고 나이가 매우 젊은 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민청 소속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민청에 소속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교원대학졸업자 10명은 당연히 민청 소속일 것이며 김일성대학, 통신대학, 야간대학생의 교원 4명, 그리고 중앙교육간부학교(양성소) 졸업자 3명 등을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교원들이 당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성소 표집집단인 교원간부양성소 교원들은 91%의 당 소속률을 나타내고 있다. 교원간부양성소 교원들 경우도 교육간부들을 길러내야 하는 임무가 있으므로 당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90%가 넘는 결과가 나온 결과라 생각된다.

(2) 교원 경력

교원 경력을 살펴보기 위해 경력을 구분했는데 1년 미만, 1~4년, 5~10년, 11~20년, 20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시기적 구분은 소군정이 조사한 1948년 교원 분석표 <표 5>에 의한 구분이며 4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 교원 경력을 조사하던 시기인 1949년 9월에서 10월정도가 해방 후 4년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4년의 경력을 가진 교원은 해방되자마자 교원을 했다고 가정하여 4년 이상의 경력자는 일제교원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표집집단인 교원대학의 교원 경력은 각각 1946년 경력이므로 1949년에 조사한 다른 집단과의 비교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따

<표 6> 교원대학 교수의 총경력(1946년)

기관	세부 집단	1년 미만	1~4년	5~10년	11~20년	20년 이상	인원
교원 양성 기관	교원대 (청진, 평양)	8	15	12	6	7	48
	1946년도	16%	31%	25%	12%	16%	100%

자료: 필자가 이력서를 정리하여 표로 만들.

<표 7> 교원양성기관 세부 교원집단별 교원 총경력(1949년)

기관	세부 집단	1년 미만	1~4년	5~10년	11~20년	20년 이상	인원
교원 양성 기관	교원대 (평양, 청진)	0	8	21	9	10	48
		0%	17%	43%	19%	21%	100%
	사범전문 (4학교)	24(14)	30	29	9	2	94
		26%	32%	30%	10%	2%	100%
	양성소 (교간양성소)	7(3)	19	6	4		36
		18%	53%	17%	12%		100%

자료: 필자가 이력서를 정리하여 표로 만들. 교원대 통계는 각각 1946년 자료를 기초로 하여 1949년도 기준으로 산출한 숫자임.

라서 1949년도에 조사했을 경우로 가정하고 각각 3년을 추가하여 계산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경력을 추가하기 전의 자료와 경력을 추가한 후의 자료를 각각 제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집교원집단의 교원 경력에서 특징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체로 1년에서 4년 경력자들이 많다는 것이며 둘째, 집단별로 각기 최고교육경력 분포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표 7>에서 보면 사범전문학교, 교육간부양성소 1년에서 4년까지의 교육경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 비해 교원대학 교수들은 5년에서 10년까지의 교육경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이는 교원대학 교수들이 일제교원 경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대학 교수들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20년 이상의 교원 경력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946년 당시 21년에서 30년까지가 5명, 30년 이상이 1명으로 전체 표집교원집단 가운데 최고교원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1949년도로 다시 환산해서 보면 21년 이상의 경력자가 10명이다. 사범전문학교는 21년부터 30년 사이의 경력자가 2명, 교육간부양성소는 0명인 것과 비교해볼 때 교원대학 교수들의 교원 경력은 매우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원으로서 자기 전공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교육간부양성소 교원의 교원 경력은 1~4년에 가장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교육간부양성소 교원들을 실력과 당성에서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뽑았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교육간부양성소의 교원들은 교육간부들을 재교육하고 양성하는 교원으로서 인민학교 교장, 중학교 교원, 교무주임, 교양주임, 교장, 고급중학교 교원, 전문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고 정치사상교육을 시키는 교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학력이 대체로 높을 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지식을 인정받은 자로서 당성에서도 인정을 받은 자여야 했다. 따라서 교원 경력자들 가운데서 임용하되 대체로 일제교원 경험이 적거나 없는 당성이 우수하고 현재의 전공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 위주로 임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간부양성소 교원들은 교원으로서의 풍부한 근무경험보다는 학력과 실력 위주의 지식전달이 더 중요한 임무였고 새로운 인텔리 교육간부를 양성한다는 의미로 일제교육경험이 적은 교원들 위주로 등용하였기 때문에 교원 경력이 1년에서 4년 분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사범전문학교의 경우 교원 경력이 없는 교원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사범전문학교에 교원대학 졸업생들을 발령시켰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사범전문학교에 교원대학 졸업생이 많이 발령을 받았는데 그들은 교원 경력이 없는 초임발령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

(3) 일제교원 경력

표집집단의 일제교원 경력을 살펴보면 사범전문학교, 교육간부양성소 교원집단은 반 이상의 교원들이 일제교원 경력이 없는 교원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교원대는 반 이상의 교원들이 일제교원 경력을 가진 교원들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사범전문학교의 경우는 51%가 일제교원 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사범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젊은 여교원이 많은 평양 여자사범전문학교의 경우에는 60%의 교원이 일제교원 경력이 없으며 함흥 사범전문학교는 31%, 철원 사범전문학교는 63%, 북청 여자사범전문학교는 50%이다. 사범전문학교의 경우는 네 학교 가운데 세 학교가 50%가 넘는 교원들이 일제교원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젊은 교원대학졸업생들이 초임 발령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8> 표집교원집단의 일제교원 경력

기관	세부 집단	0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이상	인원
교원 양성 기관	교원대	17	0	6	6	6	3	3	5	2	1	49
	(평양, 청진)	35%	0%	12%	12%	12%	6%	6%	11%	4%	2%	100%
	사범전문	48	13	5	15	4	7	1	1			94
	(4개교)	51%	14%	5%	16%	4%	8%	1%	1%			100%
	양성소(교육	21	4	1	3	4	2	1				36
	간부양성소)	58%	11%	3%	8%	11%	6%	3%				100%

자료: 필자가 이력서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냄.

교육간부양성소 교원들도 교원 경력이 없는 교원이 58%인데 이는 교육간부를 양성하는 교원들이기 때문에 일제청산의 의미를 가지고 되도록 일제교원과거가 없으면서 실력과 학력 위주로 교원들을 임용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 보건대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집단은 대체로 일제교원 경력이 없는 젊은 교원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원양성집단 가운데 교원대학 교수들의 경우는 일제교원 경력자가 65%인데 이는 교원대학 교수들을 임용하는 조건이 중등교원 가운데 뽑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특히 교원대학 교수 가운데는 일제교원 경험이 30년을 넘기는 교원도 있다.

북한 당국은 일제 구교원의 재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과 새로운 인텔리교원집단의 양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씀으로써 교원층원의 문제들을 풀어나갔음을 알 수 있다.

(4) 학력

교원들의 학력²⁰⁾을 집단별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9>와 같다. 학력을 초등, 중등, 사범, 대학으로 나타냈다. 일제강점기 전문학교 졸업자들은 대학에 포함시켰다.

먼저 표집교원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집단 간의 학력 차이를 알 수 있다. 교원대학교수들의 학력은 대학 수준의 학력이 94%를 이루고 있으며 다른 교원집단들에 비해 학력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 수

20) 교원의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학제가 워낙 많이 바뀌고 복잡하여 그 계열을 따지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인민학교교원들의 경우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다. 학력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학력 가운데 공립공업학교, 상업학교, 국민우급학교, 고등보통학교 등의 학교는 중등에 포함시켰으며 보통학교 고등과 등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초등학력에 포함시켰다.

<표 9> 표집교원집단의 학력

기관	세부 집단	초등	중등	사범	대학	합계
교원 양성 기관	교원대 (평양, 청진)		2	1	50	53
			4%	2%	94%	100%
	사범전문 (4개교)	1	27	21	45	94
		1%	29%	22%	48%	100%
	양성소(교육간부 양성소)	2	13	0	21	36
		6%	36%	0%	58%	100%

자료: 필자가 이력서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냄.

<표 10> 전체 교원집단의 학력

집단	세부 집단	초등	중등	사범	대학	합계
교원 집단	대학	1	-	47	415	463
		0.2%	0%	10.2%	89.6%	100%
	인민학교	7,720	10,448	7,048	60	25,276
		30.6%	41.3%	27.9%	0.2%	100%
	고중 및 전문학교	1	629	1,086	1240	2,956
		0.2%	21.2%	36.7%	41.9%	100%

자료: АВПФ, Ф.0480, оп.4, п.14, д.46, лл. 318~321.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215쪽 재인용. 음영 부분의 수는 필자가 계산하여 정리함.

있다. 교원대학에 이어 학력이 높은 집단은 교육간부양성소 교원집단으로 교원들의 58%가 대학 수준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다음은 사범전문학교로 48%넘는 교원이 대학 수준의 학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전체 교원집단의 학력분포와 거의 같은 결과이다.

전체 교원집단의 대학 수준의 학력 소지자는 대학에서 89.6%, 고중 및 전문학교에서는 41.9%, 인민학교는 1.2%이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교원대학교 교수들의 경우는 94%로 일반대학 교수들의 학력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전문학교 교원들도 대학학력 소지자가 48%로 전체 고급중학교 및 전문학교 교원들의 대학 수준 학력 41.9%

보다 높게 나왔다. 교원대학, 사범전문학교, 교육간부양성소 교원집단은 대학학력 소지자가 다른 학력 소지자보다 많다는 특징이 있다.

(5) 출신 성분

북한의 교원양성정책 방향 가운데 한 가지는 근로인민계층의 교원들을 많이 양성하여 혁명계층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빈농계층과 노동자계층의 교원들을 지속적으로 임용하는 정책을 썼는데 교원 이력서를 분석해본 결과 교원들의 출신 성분 대부분이 빈농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946년 토지개혁 이후에도 중농 출신이 많던 교원들의 구성 성분이 1948년도 이후에는 빈농 출신들로 그 성분들이 많이 바뀌었으며,²¹⁾ 1949년도에도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11> 표집교원집단의 출신 성분

기관	세부 집단	로동	빈농	중농	지주	사무원	상인	소시민	기타	계
교원 양성 기관	교원대 (청진)	1	10	5				8		24
		4%	42%	21%				33%		100%
	사범전문 (4개교)	9	41	16	3	14	5	5	1	94
		10%	44%	17%	3%	15%	5%	5%	1%	100%
	양성소 (교육간부)	3	18	7		6	1	1		36
		8%	50%	19%		17%	3%	3%		100%

자료: 필자가 이력서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냄.

21) 1946년에 조사된 북한의 교원 분석표에는 인민학교의 경우 중농이 35%, 빈농이 20%, 지식인이 15%이고 중등의 경우는 중농이 30%, 지식인이 18%, 빈농이 14%의 순을 차지했으나 1948년 말에 조사된 교원 분석표에는 전체 교원 가운데 소농이 51.7%, 중농이 20.8%, 사무원이 9.8%의 순으로 나타나 교원의 성분이 바뀌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АВПРФ, Ф.0480, ОП.2, П.7, ЛЛ. 164~165. АВПРФ, Ф.0480, ОП.4, П.14, Д.46, ЛЛ. 318~321;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207~215쪽에서 재인용.

(6) 나이

표집집단교원들의 집단별 나이의 특징은 무엇일까? 북한 전체 교원의 분석표에는 나이에 대해 나와 있지 않으므로 표집교원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교원집단의 나이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집교원집단의 이력서 작성 연도가 교원대학의 경우는 1946년이고 나머지는 1949년이다. 따라서 1949년에 재조사하였다고 가정했을 때의 <표 13>도 제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범전문학교 교원의 경우 20대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30대 이후의 교원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은 교원대학 교수들이다. 교원대의 경우는 1946년도 임용 당시에는 20대가 31%, 30대가 44%였으나 3년 후인 1949년도 나이를 계산했을 때는 20대는 11%이며 30대가 60%

<표 12> 교원대학 교원의 나이(1946년)

집단	세부 집단	20대 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교원양성 집단	교원대(청진, 평양)		17	24	10	3	1	55
	1946년		31%	44%	18%	5%	2%	100

자료: 필자가 이력서를 정리하여 나타냄.

<표 13> 표집교원집단의 나이(1949년)

집단	세부 집단	20대 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교원 양성 집단	교원대 (청진, 평양)		6	33	9	5	2	55
			11%	60%	16%	9%	4%	100
	사범전문 (4개교)	1	65	16	11	1		94
		1%	69%	17%	12%	1%		100%
양성소 (교원간부양성소)		17	14	5			36	
		47%	39%	14%			100%	

자료: 필자가 이력서를 정리하여 나타냄. 교원대와 인민학교의 통계는 각각 1946년, 1947년 자료를 기초로 하여 1949년도 기준으로 산출한 숫자임.

에 해당하고 40대에서 60대까지가 29%를 차지하는 고령층의 교원집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령의 교원의 경우 새로운 교원들의 등용으로 퇴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원대가 교원 집단 가운데 가장 연령이 높다고 결론짓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교육간부양성소 교원의 경우는 나이대가 20대와 30대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으면서 40대도 14% 존재한다.

그런데 양성소 교원의 일제교원 경력과 교원 경력을 살펴보면 58%의 교원이 일제교원 경력이 없으며 1~4년의 교원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반이 넘었다. 학력도 교원대학 교수 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특별히 교육간부양성소의 경우는 일제교원 경험이 없는 교원들 가운데 학력이 대체로 높고 실력을 인정받은 자로 뽑았고 나이도 20, 30대가 고루 분포하도록 뽑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교원양성기관의 교원 임용과 관리의 특징

교원 양성 교원은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들로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 교수들과 인민교원과 보육교원을 양성하는 사범전문학교, 그리고 교원양성소 교원들이다. 이들 이력서의 분석을 통해 각 교원 양성 교원의 특징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체제 형성기에 어떻게 교원들을 임용하고 관리해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원 교원대학과 평양 교원대학 교수들의 이력서 분석을 통해 교원대학 교수들의 임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조사서를 통해 교원의 자격을 검증한다는 사실이다. 조사서는 교원대학 학장이 작성했으며 교수들의 성분, 사상 경향, 소속 단체,

전공과목 특이사항을 조사하여 임용에 반영하였다.

둘째, 학장을 임용할 때는 행정관료 중심으로 임용하였다는 사실이 다. 청진 교원대학 학장의 경우 함경북도 인민위원장이, 평양 교원대학 학장으로는 북조선교육국 행정관료가 임명되었다.

셋째, 소련계 한인교수들을 영입하여 교원대학의 설립 과정에서 체제를 정립하고 이념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소련계 한인 교육전문들을 요청하였는데, 청진 교원대학에 2명, 평양 교원대학에 5명이 파견되었다.²²⁾

넷째, 월봉을 파격적으로 급여함으로써 교수들을 대우해주었다. 학장과 부학장의 경우 매월 2,500원, 각 교수는 1,8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서울대학교의 경우와 비교할 때 파격적인 대우라고 할 수 있다.²³⁾

다섯째, 교수평의회, 학장, 강좌장을 통해 교수들을 관리하였다. 교수들이 열정적인 공산당원이라 하더라도 인텔리의 특성상 사상적 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였다. 북한 당국은 교수평의회에 당 조직을 포함시켰으며, 『교원대학에 관한 규정』²⁴⁾에 학장의 주요 임무를 지도검열 및 정치 문화 교양사업 실시, 강좌장의 주요업무를 강좌에 속한 교수들의 강의 등을 지도 검열하는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교수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22) 해방 직후부터 북한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던 소련계 한인집단 중 교육 분야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1946년 10월 말에 북한에 들어온 <36그룹>이다. 그룹의 일원인 남일은 도착 후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교육국 부상에, 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의 부총장에, 박병율은 강동정치학교의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23) 김기석, 『일란성 쌍생아의 탄생, 1946: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서울: 교육과학사, 2001), 79~80쪽.

24) 김형찬, 『북한의 교육』, 531~536쪽.

사범전문학교 교원들의 임용과 관리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표집 집단으로 평양 사범전문학교, 함흥 사범전문학교, 철원 사범전문학교, 북청 여자사범전문학교를 분석하였고 다음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평양 여자사범전문학교의 경우는 여자 교원의 비율이 54%로 교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20세 전반의 젊은 나이의 교원이 80%를 차지하는 젊은 교원집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둘째, 함흥 사범전문학교의 경우는 40대 교원들이 4분의 1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전원 남자교원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셋째, 교원들의 학력은 대졸이 많은 편이며 특히 교원대학졸업생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교원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발령을 받은 교원이 많다는 것은 사범전문학교 교원의 전반적인 성격을 교원 경력과 일제 교원 경력이 없는 교원들이 많은 집단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으며 전반적으로 사범전문학교 교원집단을 젊은 교원집단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새로운 인텔리교원의 영입을 의미한다.

교육간부양성소 교원들의 임용과 관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용 전에 여러 명이 작성한 문의서를 통해 자격을 검증하였으며 내각간부국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거나 해임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갔다.

둘째, 교원들의 학력이 교원대학교수들의 학력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

셋째, 교원양성소 교원들의 경우는 소장은 당 관료 출신이지만 양성소교원들의 대부분은 교원 출신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교원들은 20~30대가 많으며 교원 경력 가운데 일제교원 경

력이 전혀 없으면서 1년에서 4년까지의 교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원이 대부분이다. 이는 교육간부양성소 교원들이 해방 후에 교원이 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새로운 인텔리교원의 영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섯째, 교육간부양성소 교원들은 학력과 실력을 인정받은 해방 후 교직에 들어온 교원들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여섯째, 교원 평가 시 불분명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조사를 통해 교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이는 교육간부를 양성하는 교원들을 까다롭게 관리했음을 의미한다.

교원 양성 교원집단의 경우는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교수들의 학력이 가장 높은 특징이 있으며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집단인 사범전문학교 교원들은 교원대학졸업자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교육간부양성소 교원은 대학교수 다음으로 학력이 높은 집단이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등용 또는 해임하였다. 임용 이후의 관리에서도 재조사를 통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도록 관리해나갔다. 교육간부양성소 교원들에게 보이는 이러한 철저한 관리는 민족교육간부를 재교육하고 양성하는 임무를 맡은 교원들로서 그 임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3) 교원 임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방식

교원의 임용과 관리에 국가의 개입을 살펴보면 어느 집단에서는 좀 더 깊이 있고 강도 있게 개입하는 반면 어떤 집단에서는 약하게 개입하는 등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의 개입은 늘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원양성기관 교원들의 임용과 관리에서 나타나는 대표

적인 국가 개입의 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원의 임용 시 철저한 조사와 문의서를 통한 자격 검증이다. 교원대학의 교수 채용과 교육간부양성소 교원을 뽑을 때 특히 엄격하게 적용했다. 교원대학의 교수 임용 시에는 이력서와 함께 조사서가 상부기관에 함께 제출되었다. 이력서는 학력과 학력 외 이력에 대해 연도별로 자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조사서의 경우는 기관관리장이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신 성분과 소속당, 사상적 경향, 전공 과목에 대한 교수 임용자의 특징 등을 기록하였다. 교육간부양성소 교원들의 경우는 보통 한 사람에 대해 3명의 문의서가 쓰였으며 문의서 내용은 학과에 대한 지식 및 실력 정도, 정치교양 정도, 출신 성분, 사업추진력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특히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며 재조사가 필요하거나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인사발령에서 불리한 조치를 받았다.

둘째, 구인텔리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비록 일제강점기의 교원 경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들을 적극적으로 개조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교육경험을 활용하는 데 국가가 개입하였다. 특히 교원대학의 교수를 채용할 때는 교원 경력자를 뽑았으며 동시에 이들의 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였다.

셋째, 근로인민 출신의 교원들을 적극 등용하는 것이다. 토지개혁의 영향으로 학교 내의 학생들의 계층 구성은 근로인민으로 급속히 바뀌었지만 교원의 구성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토지개혁이 완성된 후인 1946년 6월 교원통계표²⁵⁾에 의하면 여전히 중농 출신이 교원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지주나 상인, 자본가, 지식인,

25)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207쪽.

사무원 등 계층의 교원 구성비도 42%를 차지하였다. 빈농과 로동자의 구성비는 23%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북한 당국의 노력의 결과로 교원 계급 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1948년 교원 분석표에 의하면 전체 교원 가운데 소농이 51.7%로 늘었으며 중농은 20.8%로 줄었다. 소농이 교원의 반을 차지하는 구성비로 바뀐 것이다. 교원 구성비의 변화는 1949년 표집집단에서도 볼 수 있다. 교원대 교수, 사범 전문학교, 교육간부양성소 교원의 출신 성분 구성비에서 빈농이 가장 많았다.

넷째, 당이나 행정관료들의 활용이다. 북한 당국은 당원이나 행정관료들을 적극적으로 교원으로 임용하였는데 교원 부족을 메꾸기 위한 목표와 함께 당시 학교를 사회주의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교육간부양성소 교원들의 경우는 교원 경력자들을 주로 뽑았으나 이들 가운데 당이나 행정관료의 경험을 가진 자들이 44%이다.

또한 당이나 행정관료의 활용은 기관의 장의 임용에도 적용되었다. 이는 기관을 당에서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다. 민족간부양성소의 소장은 당 관료 출신들로 이루어졌다.²⁶⁾ 그들의 역할은 교원들의 당성을 점검하고 그들의 문의서를 작성하여 평가하고 재배치하는 것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강했다. 따라서 소장은 학력이나 교원 경력보다는 그들의 당성과 사업추진경험들을 중요시하여 등용되었다. 이렇듯 기관의 장을 당 관료로 세움으로써 당 중심의 기관들로 만들려는 북한의 의도는 교원대학의 학장 임용에서도 볼 수 있다. 청진교원대학 학장의 경우도 교수로서 학력과 실력은 갖추지 않았음

26) 평남 간부양성소, 함북 간부양성소, 황해도 간부양성소 소장들은 교원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당 관료들이다. 박혜숙, “사회주의 체제형성기 북한의 교원에 관한 연구, 1945-1950”(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26쪽.

에도 함경북도 인민위원장을 학장으로 발령냈다. 이는 그의 행정실무적인 위치를 높이 평가한 것이지만 기관의 장을 당이나 행정관료로 세움으로써 당의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

이상에서 국가의 개입 양상이 교원집단 내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북한 당국은 교원의 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구인텔리집단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근로인민층의 교원집단을 지속적으로 양성했다. 또한 당과 관료들을 적극적으로 교원집단에 투입함으로써 교원집단의 구성원들을 관리해나갔으며 교육대학 학생의 발령에 관여함으로써 교원집단의 구성 성분도 변화시켜나갔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교원들은 사회주의 집단으로 점점 더 변화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평가를 통한 교원의 분류와 재배치

1) 교원평가와 인사 조치

북한 당국은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해 양성기관을 설립하여 교원들을 양성하고 충원하였으며 기존 교원을 중심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뿐 아니라 교원평가를 실시하여 교원들을 분류하고 재배치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교원 구성을 재편하고자 하였다.

교원들의 평가영역을 보면 성격, 종교, 가정환경(출신 성분), 사업, 군중과의 신망, 정치이론 수준, 전공 실력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교원집단별로 평가내용의 비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가에 대한 표집교원집단은 사범학교 교원, 교육간부양

<표 14> 평어들의 영역별 개수들

영역	사범전문학교		교육간부양성소		합계	
	횟수	%	횟수	%	횟수	%
성격	6	7	3	5	9	6
종교	7	8	0	0	7	4
출신 성분	6	7	13	21	19	12
사업	27	29	21	33	48	31
군중과의 관계	0	0	0	0	0	0
정치이론 수준	32	34	22	35	54	35
전공 실력	14	15	4	6	18	12
총개수	92	100	63	100	155	100

자료: 필자가 교원의 문의서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냄.

성소 교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원대학교수는 평정서가 존재하지 않아 평가내용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먼저 교원집단 간의 평가 비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집단의 교원이력서에 나오는 평어들을 평가영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영역별로 평어들이 몇 번 나오는지 그 개수를 세어 기록하였다. 이 방법은 교원을 평가하는 평가자가 중점적으로 평가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개수가 많다는 뜻은 그 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집단별로 영역에 해당되는 평어의 개수를 비교함으로써 교원집단 간의 평가의 중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각 교원들의 문의서에 나오는 총론 부분²⁷⁾에 해당하는 평어를 분석한 결과 <표 1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4>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범전문학교의 경우 ‘정치이론 수

27) 문의서를 보면 몇 개의 항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평가한 후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그 부분을 의미한다.

<표 15> 함흥 사범전문학교의 40대 이상 교원의 문의서

순	성명	판정	문의서
1	50세의 박찬범	현직	본인은 15세 때 석왕사 도제로서 입문한 것이 동기가 되어 불교를 신앙하게 되었고 또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동기가 되어 오늘 그의 생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그의 역사과 교수에 있어서 그의 사업 작풍에 있어서 그렇다. 사관이 확고하지 못하고 사업추진력과 적극성이 없다. 고령으로서 현재 혁명적 기력이 미약하며 극히 소극적이다. 그러나 본인은 양심적으로 교원 생활을 한다. 현직에 적당(역사과 교원으로 다소 의식 수준이 낮고 계급적 입장에 못선 점도 있다).
2	46세의 주영	교체 가능	가정환경은 보통이며 본인의 이력은 아주 복잡하다. 앞으로 발전성이 없다.
3	47세의 박효진	교체	가정환경은 아주 좋은 편이 못 된다(반동을 할 요소가 있음). 본인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열성이 없음. 앞으로 교체시키는데 적당하다고 본다.
4	45세의 최금련	교체	본인 어렸을 때부터 가정환경은 좋은 편이 못 됨(기독교).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게 열의가 없다. 본 교원은 사리사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문과 교원으로 적당하지 않음. 교원으로 그렇게 발전성이 없다. 교체.
5	46세의 배정삼	교체 또는 현직	가정환경은 종교가로 그렇게 좋지 않음. 특히 처자집이 과거 친일파이고 본인도 종교가로서 유신론적 경향이 좀 있다. 본인 사업에 있어서 열성이며 그러나 종교가로서 고려할 점 있음. 음악동맹 합흥지구위원의 일을 보고 있으므로 전도적으로 음악을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데 본인 사업이 책임이 중함으로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료: 필자가 이력서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준'과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그 외에도 '전공 실력'에 대한 평가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전공 실력' 특히 교수기능을 높이기 위한 교원에 대한 평가 흔적을 평어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지리를 담당하고 학생들의 실력제고에 옮겨 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도가 없어 만들기에 애쓰고 있다” 등의 표현인데 인민학교 교원들을 양성하는 사범전문학교 교원답게 교수학습을 위한 태도들을 비중 있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평양 여자사범학교의 경우는 모든 여교원들이 전공 실력을 높이기 위해 매우 노력했음을 문의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자체 교양 수준은 떨어졌던 것으

로 나타난다. 함흥 사범전문학교의 40대 교원들의 경우는 ‘전공 실력’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면’에 대한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그들은 대부분 사업면에서 열의가 없고 추진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인사 조치 상황을 보면 사업면에서 열의가 없다는 평가와 함께 가정환경이 좋지 못해 반동을 할 요소가 있다고 평가를 받은 한 교원의 경우에는 교체 판정을 받았다. 교체 판정을 받은 다른 교원도 사업에 열의가 없으며 가정형편이 기독교이고 사리사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체 판정을 받았다.

교육간부양성소 교원의 경우도 ‘정치이론 수준’과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그 외에 ‘출신 성분’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교육간부양성소 교원들을 임용할 때 교원당 문의서를 3개 정도 받는 등 매우 까다로운 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했듯이 그들의 성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은 교육간부양성소 교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출신 성분이 그들의 인사행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정치사상 수준이 높고 사업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출신 성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치사상이 높고 사업 능력이 우수하면 인사 조치에서 현직에 유임되기도 하였으며 승진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출신 성분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 얼마든지 재평가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출신 성분이 애매모호한 경우 또는 가족관계 상황이나, 과거의 행적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인사 조치에서 불리했다. 이러한 경우는 재조사 및 조동 조치를 받았다. 따라서 교육간부양성소에서는 교원들의 명확한 신상정보를 매우 중요시했으며 임용 시에 모르고 등용되었더라도 다시 들추어내어 재조사할 정도로 과거 이력과 가정환경 등에 대해 정확히 하였다. 이는 교육간

<표 16> 교육간부양성소 교원들 출신 성분 관련 문의서

순	소속	직책	이름	평가	판정
1	함북	강사	고대유	학도병으로 군조까지 하였으며 해방 전 2, 3일 도주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할 자는 없다고 한다. 수학교원을 당분간 리용했다가 조동시키는 것이 필요 사상적으로 그리 믿을 만한 점은 없다.	조동
2	함북	교원	김기운	가정환경에서 11촌 되는 리성준이라는 사람이 일제 때 경관을 하였는데 이 친척들이 한 부락에서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음. 수학교원을 당분간 리용했다가 조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조동
3	함북	강사	구동해	본인의 가정 및 친척은 동북에 이사하여 현재까지 농사하고 있다. 이를 보증하는 사람은 웅기 중학교장 외에는 없다고 한다. 재조사 필요하다.	재조사
4	함북	교원	노동물	만주서 부동산 사무를 보았다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사업을 꾸준히 한다. 그러나 솔선적이지 못하고 자각적이 못 된다. 맡겨진 사업만 한다. 보수적인 면이 농후하다. 앞으로 강력한 조직적 훈련과 교양이 많이 요구된다. 앞으로 당분간 이용하고 조동시킬 필요가 있다. 경력과 능력으로 보아 현도교 간 교원이 적당하다고 본다.	조동
1	평남	교원	이태섭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하나 젊은 간부로서 특히 비판력이 세며 계급성이 강하므로 발전성이 크다. 성격상 좀 더 포용력을 가지며 교무사업과 자체 교양에 힘쓴다면 우수한 간부가 될 수 있다.	현직
2	강원	교무주임	최문영	가정환경은 좋지 않으나 리론간부로 당분간 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중앙교 간 정치교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당함. 성격상 소질보다 정치교원이 적당하다고 본다.	전직
3	함북	강사	구동해	본인의 과거생활의 영향은 앞으로 발전에 하등의 장애도 되지 않는다. 발전성이 풍부한 동무다. 본소 사업에서 과오 없이 꾸준히 자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였다. 앞으로 정치사상 수준의 제고를 위한 사업에 좀 더 노력한다면 유능한 교원이 될 수 있다. 본소 물리교원으로서 전공과목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한다면 아주 충분하고 우수한 수준으로 책임을 담당할 수 있다	현직
4	함북	강사	고대유	본인의 성분은 사무원이지만 정치사상의식에서 별 결함은 없고 사회관계도 그리 복잡하지 않으며 자연과학 부문 이든지 또는 관리·운영 사업에 발전성이 있으며 본소 사업에서 과오 없이 자기 책임을 효과적으로 다하였다. 이 동무에게는 정치사상의식을 견고히 하여 더욱 노력해야겠다. 본소 수학교원으로 자기 책임을 담당할 때 유감없다고 생각한다.	현직

자료: 필자가 이력서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부를 양성하는 교원들의 투명성과 순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교원들의 평가 관점은 교원집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는 ‘정치이론 수준’이 가장 중점이 되는 평가 영역이나 사범전문학교는 ‘전공 실력’을, 교육간부양성소는 ‘출신 성분’에 중점을 두는 등 각 교원양성기관별로 평가 기준을 달리하면서 교원들을 분류하여 인사 조치했음을 알 수 있다.

2) 징계를 통한 교원의 배제

교원들의 잘못에 대해 당과 기관에서는 견책, 경고, 출당, 철직 등의 책벌을 주었는데 책벌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어떤 것을 교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배제의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징계는 북한 당국의 북한 교원을 평가하고 재배치하는 이상의 강제력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교원집단을 재구성해나가는 강력한 제재 도구였다.

견책은 책벌 가운데 가장 가벼운 징계로서 견책을 받는 사유를 보면 교양사업지도 미약, 소군 환송금 횡취한 사건에 대한 감독 소홀 등을 들 수 있다. 군당 내의 정치교양학습을 철저히 지도해야 하는데

<표 17> 견책과 그 사유

이름	현 직책	날짜	징계 사유	책벌	징계 준 기관
김철성	중앙간부양성소 소장	1949.9	북조선교문직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시평강군당 내 정치교양사업지도를 미약	견책	로동당강원도당 상무위원회
허준	함북 간부양성소	1949	성진 제3중학교 교장으로 있을 당시 교양주임 김광명이가 학생들에게 소군환송금을 거둔 것을 횡취한 사건	견책	성진시 인민위원회

자료: 필자가 이력서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표 18> 경고와 그 사유

이름	현 직책	날짜	징계 사유	책벌	징계 준 기관
김우섭	중앙교육	1927.8	당중 분실	경고	북직총평남도련맹

자료: 필자가 이력서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표 19> 엄중경고와 그 사유

이름	소속	날짜	징계 사유	책벌	징계 준기관
김희중	황해 간부 양성소 교원	1947. 8.12	신문사의 공금을 로동당 곡산로당 리원 에게 비공식으로 대여하였다는, 즉 정치 적 경각이 없었다는 이유로.	엄중 경고	북조선로동당 황해도 해주시당부
최대식	황해 간부 양성소 교원	1949. 5.6	학교장으로서 교원의 반항적 연극 출연 에 대한 검토 연구 부족으로	엄중 경고	황해도 안아군당부
리제익	황해 간부 양성소 소장	1947. 4.6	황해도인민위원회 사법부장으로 있을 때 내부 민주당원이 공금횡령 48만 원 가지 고 이남 도주한 데 대한 감독 불충분.	엄중 경고	해주시당 부위원회

자료: 필자가 이력서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그것을 소홀히 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장으로 있을 당시 교양주임이 학생들에게 쏘련군 환송금을 거둔 것을 횡취한 사건은 이미 지난 사건이지만 공금횡령 사건을 잘 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장에서 양성소 교원으로 발령을 받았음에도 뒤늦게 견책을 받았다. 이로 보건데 비록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더라도 후에 밝혀졌을 때는 징계처리를 했던 것으로 보아 징계를 통한 교원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경고에 대한 징계사안들을 살펴보면 당중 분실인데 분실 등은 일상 생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가 ‘경고’라는 책벌을 받는 징계사안이 되는 이유는 그들의 실수가 당과 기관에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당중 분실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표 20> 철직·출당·사직과 그 사유

이름	현 직책	날짜	징계 사유	책별	징계준 기관
리제익	황해 간부 양성소 소장	1947. 4.6	황해도 인민위원회 사법부장으로 있을 때 내부 민주당원이 공금횡령 48만 원 가지고 이남 도주한 데 대한 감독 불충분	철직	황해도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김영삼	황해 교육간부 양성소	1949. 9.6	사리원고급중학교교원으로 당 입당. 만취하여 세포위원장을 구타한사건	출당	황해도 사리원시당
정성모	간부 양성소	1946. 12.30	금전 3000원(공금)을 자기 가사에 사용하여	사직	당

자료: 필자가 이력서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데서 온 것들이다 따라서 작은 것이라도 당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경고를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엄중경고와 관련된 징계사안을 보면 당 규율 위반사항들과 당에 대한 반항적 행위를 한 부하직원들을 감독하지 못한 데서 오는 책벌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사 공금을 기관의 허락 없이 함부로 대여한 것도 기관의 규율을 무시한 행동이다. 학교장으로서 교원이 연극에 출연한 사실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안이 되는 것은 교원이 반 항적 연극에 출연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공금사건을 감독하지 못한 것이 당으로부터 엄중경고를 받은 것은 공금횡령을 한 민주당원이 남 한으로 도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금을 횡령하고 이남 도주한 것에 대한 감독 불충분으로 철직을 받은 리제익의 경우는 해주시당부위원회로부터 엄중경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안에 대해 황해도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로부터 철직의 책벌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은 황해 도 인민위원회 소속 당시에 일어난 일이므로 황해도 인민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그가 황해도 간부 양성소 소장직으로 옮겨간 후

임에도 그 시비를 가려서 징계를 주는 북한 당국의 철저함을 엿볼 수 있다. 세포위원장을 구타한 사건으로 출당을 당했는데 이것은 세포위원장은 곧 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로서 당의 기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출당시킨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직접 공금을 횡령했을 때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사직²⁸⁾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북한 당국은 잘못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관리자도 함께 징계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좀 더 철저하게 교원들을 관리해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잘못된 교원들을 징계를 통해 재교육을 시키거나 혹은 교직사회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교원 구성을 재편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5. 나가는 글

지금까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형성기에 북한의 교원, 특히 교원양성기관의 교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해방 후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사회주의체제로의 이행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교원양성기관의 교원이 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어떻게 이들 교원들을 평가하고 관리해나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양성기관의 교원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는가의 질문은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와 같은 맥락의 질문으로 이것은 곧 교원들의 사회적 속성과 더불어 임용과 충원, 관리, 평가, 재배치에 관한 북한의 인사관리체제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북한 교원양성기관의 교원들의

28) 사직은 일하던 직무를 스스로 내놓고 그만두는 것을 의미함. 『조선말대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639쪽.

특징은 사회적 속성별 특징들과 함께 북한 교원인사관리 행정체제와 연관하여 분석되었다.

북한 당국은 해방 직후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일제 구교원들을 유입시키는 정책을 폈으며 더 나아가 일제 구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일제 구교원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부르주아적 근성을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일제 구교원을 사회주의화시키기 위해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교원정책은 크게 교원 양성과 교원 재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원양성기관인 교원대학과 사범전문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교원양성소를 세워나갔다. 새로이 양성하는 교원들은 근로인민계급 교원들로 충원하도록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교원대학교수들과 사범전문학교 교원, 간부양성소 교원들의 RG-242자료인 교원 이력서 분석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들 교원양성기관의 교원들의 이력서를 사회적 속성별 특징들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교원대학교수들의 경우 일제교원 경력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반면 간부양성소의 교원들은 일제교원 경력이 없는 교원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해방 초기 북한 교원집단은 이러한 두 가지의 흐름이 존재하면서 교원들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재배치하는 북한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교원의 사회주의화의 틀이 강력하게 만들어졌다.

북한 당국의 체제 형성기 교원양성기관 교원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가 개입에 의한 임용과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교원양성기관의 교원들을 임용하고 재교육하고, 평가, 인사 조치하는 과정들을 국가가 담당하였고 개입하였다. 임용 또는 승진될 때에 문의서

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문의서에 기록한 평가에 따라 발령 또는 인사 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원에 대한 관리 행태는 이후에 지속되면서 북한 교육의 중요한 교원교육과 관리의 틀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임용 및 평가에서 교원양성기관 교원들을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였다. 교원대학교 교수와 교육간부양성소의 교원의 임용은 매우 까다롭게 이루어졌다. 교원들의 평가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정치이론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 성과면, 출신 성분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징계에서도 교원관리자들의 징계사안을 보면 본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교원들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경우들도 많았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교원들을 관리할 때 임용에서 평가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교원들을 재배치하였다.

셋째, 오래된 구인텔리교원들의 적극적 활용이다. 북한은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일제 구교원들을 유입시켰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교원대학교 교수들을 임용할 때도 중등학교교원들 가운데서 뽑았으며 교원들은 모두 교원 경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일제교원들, 즉 구인텔리교원 출신이 80%를 차지한다. 이는 북한이 학교 경영에서 일제구인텔리들의 경험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교원의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이나 함흥 사범전문학교의 경우는 다른 교원집단에 비해 고경력교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당시 일제 구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는 교육사업운영이 힘들었음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넷째, 새로운 인텔리집단의 등용이다. 교육간부양성소 간부들은 대부분이 일제경력이 없는 1~4년까지의 교원 경력을 가진 교원들로 이

루어졌다. 이들은 높은 학력과 빈농 출신이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사범전문학교의 경우는 새로운 교원대학졸업생들을 대거 발령내고 있으며 구인텔리교원이 많은 함흥 사범전문학교의 경우 문의서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들이 의욕 없음을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인텔리교원집단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 형성기의 북한의 교원양성기관의 교원에 대해 분석한 이 연구의 후속 연구 영역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발굴과 정리이다. RG242자료 경우 상당히 방대한 양으로 북한 연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 아직 체계적인 분류와 정리가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교육자료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고 분류하며 자료집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집의 발간은 개인 연구자가 아닌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좀 더 자료들의 수집과 정리에서 체계성과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자료의 발굴에서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이후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자료를 활용하고 분석하여 더 우수한 연구물들을 양산할 것을 기대한다.

둘째, 좀 더 다양한 교원집단의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원과 중학교원, 초·중등학교원을 관리하는 교장 또는 시학 등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기술학교 교원 등에 대한 교원 연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1950년대 이후 교원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원 연구가 연계성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에 대한 연구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좀 더 심도 있게 연계성을 가지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강근조, 『조선교육사』, 제4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교육도서출판사, 『해방 후 10년간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교육성, 『교수요강(인민학교용)』(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1950).
국토통일원, 『북괴법령집』(서울: 국토통일원, 1972).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_____, 『김일성선집』,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_____, 『김일성저작집』, 제1~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_____, 『김일성전집』, 제1~1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창호, 『조선교육사』, 제3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
_____, 『조선중앙년감 1950』(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조선말대사전』, 제2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2) 논문

- 김일성, “20개조 정강,” 『김일성전집』,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_____, “건국사업에서 인텔리들 앞에 나서는 과업: 평양시내교원, 인텔리들 앞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_____, “교원대학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_____, “교육 부문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전집』,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_____, “민족간부는 새 조선 건설의 기둥이다,” 『김일성전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남 일, “1948년 인민경제 부흥발전 실행에 있어서의 새경험과 새과업,” 『인

민』, 9월호(1948).

____, “전반적 초등의무교육 실시와 그 준비사업,” 『근로자』, 제22호(1949).

백남운,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는 문화혁명의 거대한 전진이다,” 『인민』, 12월호(1949).

장중식, “북조선교육의 당면과제,” 『인민』, 11월호(1946).

허 런,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실시의 국가적 의의와 1949년도의 준비사업에 대하여,” 『인민』, 3월호(1949).

3) 신문 및 잡지

『교원신문』 마이크로 필름 1949년 7~11월, 1950년 1~8월.

『인민교육』 마이크로 필름 1947년 3월, 5월, 1949년 2~10월, 1950년 1~2월, 6~7월.

4) 북한노획문서

『군적승리깃발 쟁취운동 총결보고』, SHIPPING, ADVICE NO.2006, BOX 16, ITEM 31.

『모범소년단 추천서』, SHIPPING, ADVICE NO.2006, BOX 16, ITEM 31.

『1948년 9월 23일 선천고급중학교 초급단체 회의록』, SHIPPING, ADVICE NO.2006, BOX 16, ITEM 97.

북한 교원 이력서(1946-1950) RG242 자료.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고 전, 『한국교원과 교원정책』(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2).

교육출판기획실, 『민족문제와 교육』(서울: 푸른나무, 1990).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I(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2).

____, 『북한관계사료집』 V(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____, 『북한관계사료집』 XI(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1).

____, 『해외자료총서4: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II-NARA RG 242

- <선별노획문서>외』(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 김갑철, 『북한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제』(서울: 문우사, 1984)
- 김경식, 『재중한민족교육전개사』(서울: 도서출판 문음사, 2004).
- 김기석, 『교육역사사회학』(서울: 교육과학사, 1999).
- _____, 『일관성 쌍생아의 탄생, 1946: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서울: 교육과학사, 2001).
- 김남성 외, 『교사교육론』(서울: 학지사, 1990).
- 김남식·이정식·한홍구, 『한국현대사 자료 총서』, 제12권(서울: 돌베개, 1986).
-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서울: 문맥사, 1990).
- 김동규·김형찬, 『북한 교육사: 조선교육사 영인본』(서울: 교육과학사, 2001).
- 김학준, 『한국전쟁』(서울: 박영사, 1989).
- 김형찬, 『북한 교육 발달사』(서울: 한백사, 1988).
- _____, 『북한의 교육』(서울: 을유문화사, 1990).
- 백종억,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와 교육개혁의 동향』(서울: 교육과학사, 2000).
- 북한연구소, 『북한 교육론』(서울: 북한연구소, 1977).
- _____, 『북한총람 1945~1982년』(서울: 북한연구소, 1983).
- 서대숙,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제6권(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 서정화 외, 『교장론』(서울: 도서출판 하우, 1995).
-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2003).
- 안창선 외, 『교사론』(서울: 교육과학사, 1999).
- 오영재, 『한국학교조직 질적 연구』(서울: 학지사, 2006).
- 윤 완, 『교육의 역사와 철학』(서울: 원미사, 2003).
- 윤정일 외, 『교육행정학원론』(서울: 학지사, 2002).
- 이만규, 『조선교육사(하)』(서울: 을유문화사, 1949).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이향규,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1945~1950』(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 조한혜정·이우영, 『탈분단 시대를 열며』(서울: 삼인, 2000).

최영표·박찬석, 『북한의 교육학 체계 연구』(서울: 집문당, 2010).

최영희, 『격동의 해방 3년』(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6).

최중태, 『현대인사관리론』(서울: 박영사, 1981).

2) 논문

강민석, “북한사회주의교육의 재조명,” 『교육연구』, 제8권(1991).

김경란, “북한의 정치사회화”(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김지수, “북한 관료제의 변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김창희,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김학준, “정권 형성기와 정권 초창기의 북한연구 I: 한국 전쟁기에 미군이 노획한 문서에 관한 소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24집(1948).

류길재, “북한의 국가 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박혜숙, “사회주의 체제형성기 북한의 교원에 관한 연구 1945-1950”(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방선주, “노획 북한 필사문서 해제 1,” 『아시아 문화』, 창간호(1978).

송두록, “김일성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구현한 북한의 주체적 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통일교육연구』, 제4권 제1호(2004).

신효숙, “북한의 연구의 성과와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5권 제1호(2006).

_____, “소군정기 북한의 교육정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8).

이원필, “일제하의 교원양성제도 연구”(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과거청산(1945~1948),” 『대구사학』(대구: 대구사학회, 2002).

정영수, “교원교육의 정치학적 접근,” 『한국교사교육』, 제12호(1996).

조정아, “직업적 혁명가’와 ‘동요하는 인텔리’ 사이에서,” 『현대북한연구』, 제7권 제2호(2004).

_____, “산업화 시기 북한의 노동교육”(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3. 국외 자료

Abrams, Philip, *Historical Sociology*(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Anderson, Benedict, *Imaginary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London: Verso, 1983).

Apter, David Ernest,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65).

North Korean Teachers Recruitment and management

During the Formative Years of the Socialist System 1945~1950

Park, Heasuk(Seoul Yongdong Elementary School)

Political socialization of teachers emerged as a major policy challenge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in North Korea, as it became a prerequisite for molding of socialist personality in students and ultimately reproducing socialism at the national level.

State-intervention in political socialization of teachers i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to the North Korea's education sector in its formative years. To bring out socialist teachers, the state made an end-to-end intervention in hiring, evaluation and placement practices. The state actively reached out to embrace "old intelligentsia" through teacher re-training and hire new teachers to build up a new intelligentsia pool. The authorities of the north also used different yardsticks for hiring and evaluation of teachers, based on grouping such as new hires, elementary &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the watch-listed names.

Teachers were subjected to an internalization process made of beginning, intensification, conflict and resolution. The first factor to impact the beginning stage in political socialization is socio-politico-environmental and includes the Communist Party of North Korea as well as the Democratic Youth League. The second factor has to do with education itself, such as books and publications, the party study courses and training schools. The last factor is social-relational and includes acquaintances. In the intensification stage, teachers came under socialist influence in their organizational activities and through education. Teachers underwent conflicts for religious, political or family background and social status reasons. It can be said that teachers came to accept the socialist ideology more deep within themselves in overcoming these conflicts.

In North Korea, teacher training and political socialization through state intervention continue to apply to and enable socialist reproduction in teachers, in the way that they were developed during the early formative days of 1945 to 1950.

Keywords: North Korean teachers, teachers training in North Korean, education in North Korean, North Korea's nation-building process, socialist teachers